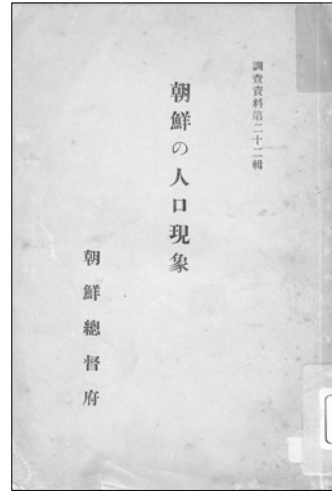


29 朝鮮の人口現象 조선의 인구현상

1927년 / 善生永助(젠쇼 에이스케) / 476면 / 09.10-09 조53조 1927

人口調査結果報告 인구조사결과보고

1944년 / 조선총독부 / 면수복잡 / 09.10-09 조53인 1944



「朝鮮の人口現象(조선의 인구현상)」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2집으로 1927년 10월에 발간했다. 善生永助(젠쇼 에이스케) 저술로 476면이다.

이 책은 인구의 통계적 관찰과 동시에 역사적, 지리적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지대하다 할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인구문제는 식량문제와 연계된다는 데 의미가 컸다. 이 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호구(세대)의 변천(도별, 시대별…)
- ② 인구의 구성(연령별, 직업별, 일본인, 조선인…)
- ③ 인구의 분포(지방별, 도시, 농촌…)
- ④ 혼인관계(결혼, 이혼수, 결혼연령…)
- ⑤ 출생(출생수, 출생율, 남녀별, 월별…)
- ⑥ 사망(지방별, 전염병, 자살…)
- ⑦ 인구의 증감(자연증가, 일본이주, 장래인구…)

조선조 500년 간의 인구통계를 보면 태조 4년(1395)부터 광무 8년(1904)까지 510년 간의 통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9년 간의 통계밖에 없다. 왕조시대의 통계는 병역과 노역관계로 시대별로 들쭉날쭉하다. 어떤 때는 여자를 뺀 통계가 있는가 하면 16세 이하를 뺀 때도 있다. 일본은 2,600년 간의 연도별 인구통계를 작성한 지 오래다. 인구학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인구학자들이 중지를 모아 한번 시도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년 후(1977)의 인구에 측을 3,800만 명으로 보고 있었다.

부도에는 20매의 지도가 있는데,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① 일본인 집단거주지 분포도
- ② 중국인 집단거주지 분포도
- ③ 인구 1,000명당 출생률(시, 군, 도별)
- ④ 인구 1,000명당 사망률(시, 군, 도별)
- ⑤ 부(府=市), 면별 인구 밀도도
- ⑥ 고도(高度) 및 온도도
- ⑦ 1 : 1,500,000 조선전도

한편 1944년에 발간한 『人口調査結果報告』(복사본)는 해방 1년 전인 1944년 5월 1일 자정에 실시한 인구조사통계인데 이에 따르면 당시 조선(남북한)의 세대수는 492만이었 고 인구는 2,591만 7,881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진주만 기습공격 이후 즉 1942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체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인구통계는 ‘극비’로 취급했다.

따라서 이 자료도 극비문서로 분류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구 19만 7천 명, 부산 6만 9천 명, 평양 7만 명, 인천 4만 4천 명, 마산 1만 1천 명, 대구 4만 2천 명, 광주 1만 6천 명, 전주 1만 3천 명이었으며 대전은 1만 5천 명이었다.